

大學評價 結果의 活用과 그 課題

黃 禎 奎

(서울大 教育學科)

1. 序 論

한 사회가 새로운 변화와 격변을 경험할 때는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도 그 나름의 독특한 체험을 겪기 마련이지만 大學은 보다 더 심각하게 그 理念과 방향을 새롭게 해석하고 정립하려는 노력을 언제나 계속하여 왔다. 한국의 大學發展史도 이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 대학은 대학의 量的 팽창과 이에 뒤따르지 못하는 質의 문제, 대학의 構造的 變化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적 운명의 문제, 사회의 期待와 대학의 教育內容 및 方法의 乖離에서 파생하는 不調和 등을 그 대표적인 문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評價活動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시도되어 왔다. 1945~60 년대에 이르는 制度的 改革時期, 1970 년대의 學事 改革時期, 1970 년대말에서 현재에 이르는 教育過程 改善時期에 각 시대의 독특한 葛藤을 수렴하기 위한 評價活動이 수행된 셈이다. 教育過程 개선 시기는 앞 시기에 이루어졌던 제도의 개혁이나 학사 개혁이 대학의 본질적 이념의 실현이나 학문적 秀越性 및 대학교육의 質을 개선하는 데 별로 뚜렷한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의 教育內容, 教授方法, 대학의 與件 등 교육의 過程에 직접적

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準據要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방향의 개혁을 시도하려는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評價의 본질적 체질은 기대하는 목표의 성취 여부와 그 성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自己反省을 통해 現存하는 현상을 거부하고 계속 새로운 자기를 창조하기 위한 批判的 성질을 띠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능에는 언제나 자기를 거부하는 苦痛이 따르기 마련이며, 심정적 차원에서는 항상 배타 의식이 작용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곧 大學評價의 結果를 활용한다는 일이 대학 기관이나 大學人에게 상당한 고통과 거부감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이미 잉태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평가의 결과는 그것이 活用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상화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의식화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한낱 儀禮的 慣行에 지나지 않는 낭비가 된다는 사실은 심각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意識의 變身

評價의 結果는 그 결과를 활용하려는 자의 意識의 변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도 그것을 먹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

게, 또 아무리 좋은 옷도 입어 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평가의 결과는 정신적 認識의 表現樣式이다. 이러한 결과 속에 內存되어 있는 조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식화하려는 主觀性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主觀的 判斷과 收容性은 끊임없는 학문적, 전문적 훈련, 그리고 도덕적 훈련을 통하여 의식화된 主觀性이다. 평가의 結果에 담겨진 정신은 그 精神만이 알아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가 속에 담겨진 精神, 價値, 意味도 그러한 것들을 意識의 수준으로 轉化시킬 수 있는 정신을 가진 자에게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大學評價의 경우 이러한 정신이나 의식의 소유자는 대학 기관에 관련된 意思決定者(이사, 총장, 학·처장 등)와 집합체로서의 教授集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각각 평가 결과에 관여하는 주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合意된 意識을 갖기도 하지만 더 빈번히는 相反된 價値를 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前者는 대학의 機關評價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대학의 財政, 施設, 學事 운영, 人事, 支援體制 등에 관한 평가는 가능하면 외부에 노출되거나 公開되기를 거부한다. 後者의 教授集團은 가르치고 배우는 教育의 過程에 관련된 일 자체는 교수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치부하고 그것이 他人의 評價活動에 의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자기의 하는 일을 聖域으로 보는 價値觀이 支配的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교수 개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엄밀히 작용하는 영향의 전부인데, 이것을 타인이 觀察이나 認識의 대상으로 삼는 것, 더우기 거기에 어떤 價値化가 작용하는 評價나 批判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拒否感과 抵抗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대학의 의사결정자 집단과 교수집단의 意識의 變身이 전제되지 않고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한다는 命題는 가망 없는 일이다.

意識 변화의 두번째 조건은 평가에 대한 參與 意識이 전제되어야 한다. 評價活動은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 사이의 긴밀하고 정직한 交互作用(transaction)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

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참여 의식이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일 때, 평가 결과가 活用이라는 발전적 단계에로 승화될 가능성은 제약된다. 평가 활동에는 大學人의 政治的, 社會的 參與가 수반되고 있다. 대학의 '評價'라는 행위는 새로운 知的 探究, 학문적 正直性의 포출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에 대한 우리의 批判과 愛情을 客觀化시켜 보려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대학 속에 언제나 主觀的으로 매몰되어 있는 自我像을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客觀化시켜 새로운 視角에서 관조하려는 발전적 의지의 포출이다. 이러한 의지는 대학인의 대학 보존과 高揚을 위해서 가하는 성원들 사이의 열린 사회를 전제한 정직한 자기찰출, 反省的 知識의 포출이다. 그러기에 意思決定者와 教授가 評價者와 함께 同心圓의 참여 의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大學評價는 한낱 '批判者'의 疎外行爲로 보일 뿐이다. 평가하는 자와 평가받는 자 사이에는 認識行爲의 표현과 評價的 判斷의 質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근원적으로 大學人으로서 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意識의 複製性에는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복제성이야말로 평가의 형태로 표현된 결과에 대해 拒否感이라는 心情的 반응보다는 理性的 同類意識을 갖게 되는 가치의 전환을 전제하게 된다.

흔히 보는 현상이지만 評價하는 者는 그 나름대로 대단히 理想的이고 현학적인 시각에서 평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또 다른 彼岸에는 전혀 評價의 結果에 '아랑곳' 하지 않는 大學人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에토스로서는 評價 활동 자체나, 또 그 活用의 極大化란 命題는 가망 없는 공상일 뿐이다.

3. 評價結果의 意味와 解釋

평가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건 價値를 전제로한 言語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가 때로는 量的 指標일 때도 있고 質的 解釋인 경우도 있다. 어떤 言語의 장르를 빌어 표현되었건간에 그것은 이미 評價者의 價値意識이 그 속에 전제되어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評價結果를

제시하는 쪽이나 그것을 활용하는 쪽이나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 보자.

첫째, 평가 결과의 활용은 目標指向的인 視角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敎育행위 자체의 본질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성격이지만, 大學은 그 시대, 그 사회의 知的 秀越性 및 道德的 秀越性을 유지·발전하려는 責務를 지고 있는 敎育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결과는 언제나 이 같은 標準에 비추어 본 目標指向的인 評價이어야 한다.

目標나 標準에 비추어 보지 않고 大學間의 相對的 比較에 머무는 평가는 실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상대적 비교는 언제나 우수한 대학, 중간 대학, 열등한 대학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평가의 결과나 그 解釋은 대학간의 끊임없는 경쟁만을 유발할 뿐이다. 마치 어떤 종류의 경기에서건 勝者와 敗者가 있기 마련인 것처럼, 이러한 상대적 비교나 그 序列 지움에 제1차적 意味를 부여한 評價는 언제나 '잘하는 대학이 있고, 못하는 대학이 있기 마련인 언어들'을 구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大學의 敎育이 제시된 評價指標에 비추어 어떤 改善을 해야 할 것인지 그 改善의 方向, 程度를 전혀 시사하지 못한다. 大學이라는 조직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評價의 결과는 목표나 標準의 達成, 혹은 成就 여부에 긴밀히 관련된 脈絡 속에서 계획되고, 제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또한 그 결과도 대학 자체에 어떤 意味 있는 형태로 送還(feedback)되어야 한다. 이 같은 目標指向的인 概念이 배제된 평가는 그것 자체가 이미 空洞 현상을 전제한 평가이기 마련이며, 이러한 형태의 평가 결과뿐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근거로 評價를 활용하려는 것이 현재의 대학 평가의 缺陷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평가의 결과는 總合的, 立體的인 脈絡 속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 동안 실시되어 온 大學評價는 대체로 單線的이며 平面的인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 왔던 경향이 있다. 대학의 여러 측면에 관련된 잡다한 지표의 객관적 사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보다 그러한 증거와

증거 사이의 관계나 因果를 總合的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立體的으로 解釋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敎授當 학생수, 학생당 敎育비, 학생당 연구비, 인건비의 비율, 敎科目 중 敎養敎育 科目의 比, 敎授方法의 종류, 講義計劃書의 작성 비율 등과 같은 평면적인 個體的인 사실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체적 사실이나 計量的인 指標가 대학의 성장이나 발전, 內實化, 質의 개선에 어떤 價値를 가지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總合的이며 立體的인 視角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眼目이 보다 중요한 活用方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고 평가의 效用性을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평가 활동 자체가 바로 '研究'의 정신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評價는 其實 그 속에 어떤 형태로건 研究의 精神이 깃들어 있을 때 의미 있는 價値化가 가능하다. 평가의 결과로 얻어진 여러 가지 情報는 어디까지나 정보일 뿐이다. 이것이 情報라는 현상적 파악이나 記述을 초월하여 의미 있는 命題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정보가 大學敎育의 效果, 秀越性, 目標에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肯定的 혹은 否定的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實證的인 研究의 言語로 파악될 때 가능하다. 예컨대 敎授當 학생수가 大學敎育의 質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研究'의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교수당 학생수를 減少시키는 것이 보다 대학교육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評價的 解釋'이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연구'의 형태, 그리고 설사 '연구'의 결과가 없더라도 모든 정보를 이 같은 '研究'의 정신 속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評價의 活用に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노력임을 지적하고 싶다.

셋째, 大學內에 대학의 自體 評價를 수행하기 위한 常設 혹은 準常設研究機構의 설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評價의 活動과 평가의 결과에 관한 분석, 해석, 활동을 위해서는 그것을 전문적 식견과 안목으로 이해할 수 있는 敎授資源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가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의 내용이나 그 해석은 상당히 전문적 수준의 식견과 판단이 요구되는 것들이며, 더우기 이러한 量的인 指標나 質

的 解釋에 토대한 평가의 결과를 대학의 理念과 目標에 비추어 의미 있는 해석을 가하고 그에 따라 어떤 意思決定을 하는 일은 대단히 수준 높은 專門의 判斷을 요하는 작업이다.

대학내의 이 같은 專門機構과 그에 관련된 교수는 외부 평가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평가의 결과를 그 대학의 목표와 상황에 비추어 분석·해석하고, 의미를 추출하여 대학의 의사 결정자인 행정가 및 교수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職務가 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그 대학 자체에서 대학의 발전을 고양하기 위해 요구하는 각종 평가 업무 및 연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을 또 다른 대학 내의 課題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 기구나 전문가 집단이 없는 경우, 외부의 評價結果는 대학의 실제 운영이나 개선에 送還(feedback)되기 어렵다. 이들은 바로 이러한 링커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더우기 外部의 評價가 통제와 지시에 의한 권위적 평가의 형태가 아니라 자율적 기구에 의한 격려와 고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필요는 더욱 절실해진다.

네째, 大學 밖에 존재하는 專門評價者는 평가의 결과를 대학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형상화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학 평가의 내용이나 방법이 아직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기에는 너무나 日淺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 탓이기도 하지만, 평가 결과로 제시되는 내용을 각 대학이 그 자체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상당

한 어려움이 개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量的 指標는 平均과 計數的 比較만 제시되어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어떤 부분에 무슨 개선이 있어야 할인지에 대한 示唆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게 제시되어 있다. 質的인 해석도 현상에 대한 평면적 기술에 한정되어 있어서 평가의 결과가 대학의 개선 의도에 직접적 시사를 주기에는 부족하다. 아무리 질적인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수한 주관적 해석에 치우친 결과는 활용성이 없다. 主觀的 판단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훈련된 주관적 해석, 혹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는 主觀性이라야 活用의 가능성은 보장된다. 이 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국 대학 평가는 評價方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4. 結 論

評價는 어차피 어떤 價値化를 의도하는 인식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知的 探究와 같은 안락한 자세로 임해서도 곤란하거나 그렇다고 맹목적인 개선 의지만 앞서도 낭패하기 쉽다.

評價結果 活用の 極大化는 평가를 하는 자와 평가의 결과를 수용해야 하는 당사자 사이에 意識의 同心圓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雙方이 모두 大學이 지향해야 할 理念과 方向, 그리고 그것을 評價의 언어로 표현하는 전문적 식견에 대한 共感帶의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에서 極大點을 찾아야 할 것이다. *